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방안

닭고기 생산비 절감 대책



김진형 전무
카길애그리퓨리나

굳이 경영학까지 들추지 않더라도 어떤 사업이던지 경영의 방향성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성향의 경영자를 만날 수 있다. 한 경영자는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는 쪽이라면, 또 다른 한 경영자는 성과 최대화를 추구하는 쪽일 것이다. 이는 경영자의 경영방침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며 개인적 생활 태도나 대인관계 등 모든 활동에서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성향이다.

어쨌든 누구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추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당연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지만 실상은 '적절한 Input으로 최선의 Output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보다 현명한 경영자가 될 줄로 믿는다. 본고는 육계 농장 자체의 경영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육계의 육종산업 발전으로 인해 최근 육계 사육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육계의 생산성에 지대한 영

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육계의 생산성은 저하되어 생산비의 절감에 있어서 시작부터 그르치는 경향이 있다.

육종의 변화를 보면 육계를 보다 빠르게 증체가 되도록 개량에 개량을 계속하여 더 이상 빠르게 키울 수 없는 거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육종의 변화는 사양관리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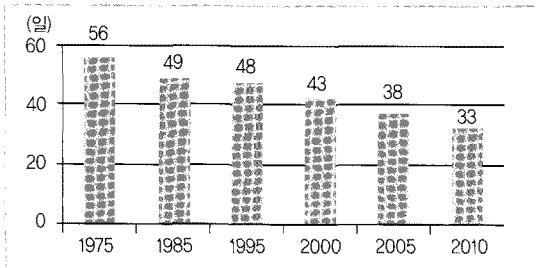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사양관리에 있어 정확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사육의 정확도는 곧 육계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닭고기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육일령의 단축

최근 30년 기간 동안 <표 1>과 같이 증체를 위한 사육일령이 무려 23일이나 단축되고 있다. 체중 2kg 도달일령은 지난 15년 동안에는 1년에 1일 단축되는 속도로 단축되었다. 이와 같이 육계의 증체속도가 빨라져 사육일령이 짧아지면서 농장에서는 고도의 정밀한 사육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즉, 56일 사육할 때의

하루라는 관리 시간에 대하여 33일 사육기간 인 요즘에는 무려 170%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즉 하루 하루의 철저한 관리가 따라주지 않으면 우수한 성적에 도달하기 어려워진다는 결론이다.

<표 1> 사육일령 변화추이



우선, 육종회사의 권장사항을 고려한 사양관리를 지켜야 한다.

변화하는 육종에 맞는 영양소의 균형있는 공급이 중요하다. 육계초이 급여기간은 육계사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아미노산 균형과 면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료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열업체에서도 일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도 초이사료를 10일간 급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후기사료 교체에 있어서도 일령 보다는 평균체중 800g이 아닌 최저체중 800g이 되었을 때 후기사료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안정적인 사육에 중요한 요소이다.

단순하게 산란계와 육계를 비교하여 보면 증체가 더딘 산란계가 사육관리가 동일한 조건에서 좀 쉽다고 느끼는 것도 이와 같은 요인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간혹 육계사육에서 성적이 개선되지 않아 산란계 중추사육으로 전환하는 경영자도 가끔은 경험할 수 있다.

2. 육계 생산비의 요소

육계 생산비 항목을 크게 구분하면 예전에도 그랬듯이 생산비를 많이 차지하는 순으로 사료(53%), 병아리(29%), 기타(18%)로 나누어진다. 기타 항목으로는 연료비,약품비,백신비,상차비,농장 사육비 등이 포함된다.

표로 보아 단순하게 수치로 비교하여 경중을 논할 수도 있으나 필자는 균형되고 안정된 생산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형 닭 생산도 생산비 kg당 병아리 비용을 줄이고 생산량은 늘리는 매우 중요한 생산비 절감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육기간이 짧아지면서 사육 중 문제가 생기면 현재로서는 많은 농장들의 생산성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고도의 정밀 사육관리를 통하여 연간 안정된 생산성 유지가 육계농장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방안

닭고기 생산비 절감 대책

3. 육계 사료요구율 변화

육계의 증체속도와 더불어 육계의 사료요구율 개선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육계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표 2〉 연도별 육계 성적 변화

연도	출하체중	육성률	사육일령	FCR	PI
FY2003	1.51	91.9	34	1.85	220
FY2004	1.43	95.6	32	1.72	241
FY2005	1.47	93.1	33	1.77	234
FY2006	1.51	94.2	33	1.76	242
FY2007	1.51	93.7	33	1.74	247
FY2008	1.53	95.6	32	1.68	274
FY2009	1.54	95.5	31	1.67	282
FY2010	1.57	94.8	31	1.66	288

육계의 정밀 사육 프로그램에 따른 최적의 사료의 선택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육계의 생산비 절감에 가장 큰 몫을 담당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이 대부분 계열화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육계경기의 영향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호경기에는 위와 같은 말이 당연시하겠지만 불경기에는 비용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일부 작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육계의 생산성 유지가 결국에는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

육계가격이 떨어지면 육계의 생산성은 높고 육계가격이 상승하면 육계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급의 영향으로 가격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시장논리라고 생각된다.

육계의 성장이 빨라지면서 경기에 따라 닭고기를 수급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육일령을 조절하는 기회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된다. 얼마나 일정한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결국은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시대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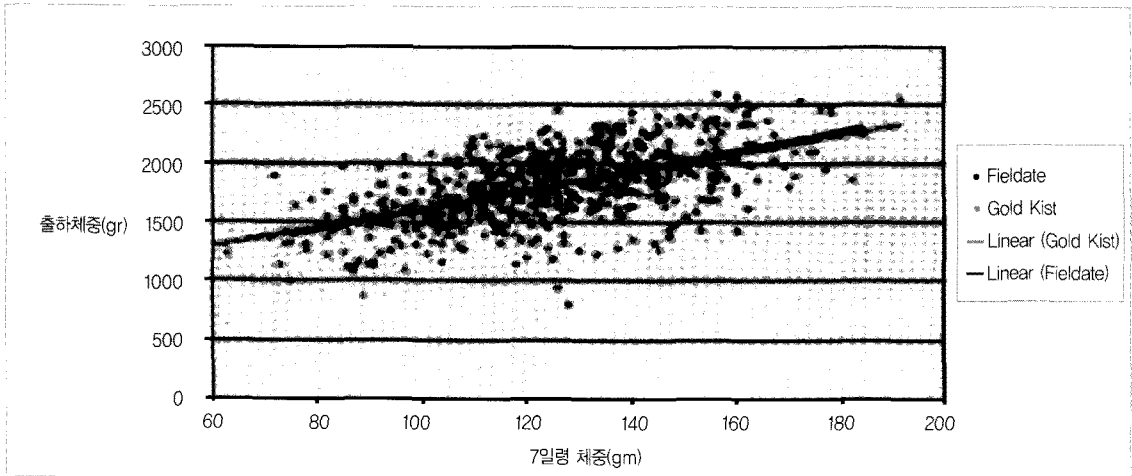
4. 병아리의 품질

사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생산비를 차지하는 요소는 병아리 비용이다.

전반적인 육계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병아리 생산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앞서 병아리 품질 안전성 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출하일령이 단축되면서 7일령 체중이 출하체중에 미치는 영향이 한층 더 높아져 있다. 병아리 입추부터 7일령까지의 특별한 사양관리와 영양공급, 섭취량 증대가 가장 큰 관리 핵심이다.

〈그림 1〉 7일령 체중과 출하체중의 상관관계



즉, 병아리를 입추한 후에 7일령 체중을 평상시 보다 10g을 더 증체시키면 32일령 출하시 체중을 80g에서 100g을 더 증체시켜 출하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를 한다면 생산비용 절감을 연간으로 계산한다면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농장에서의 입추관리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고 정확도를 높였느냐가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연결되는 문제가 바로 병아리의 품질이다. 우선 농장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입추준비를 하고 육추관리를 하였다 해도 병아리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7일령 목표체중 도달에 실패할 수 있다.

병아리를 평가하는 요인들은 너무도 잘 알

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하자면, 병아리 무게 40g 이상이어야 7일령 체중 150~160g이 가능하며, 난계대 질병이 없는 병아리를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육계농장에서의 수평감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단일 계군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끼리 입추된 계군이 당연히 균일도가 높아질 것이다.

육계 사육 규모가 커져가면서 계사당 사육 규모도 커져 같은 계군 병아리로 한 계사에 입추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큰 선에서 보면 육계농장도 병아리분양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계군 정보를 분양 시 알 수 있다면 칸막이로 구분하여 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방안

닭고기 생산비 절감 대책

육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육계의 경우 간단한 칸막이가 출하 시 계군의 균일도를 향상시키고(소위 꼬리 발생 감소) 사육 중 계군의 사회적 서열 경쟁도 줄여 스트레스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큰 소득이 있다.

5. 육계 농장의 사육관리

사육관리라 하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현재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육관리의 정확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과거보다 농장의 사육시설은 현대화되었다. 사육시설이 현대화되면서 육계의 평당 사육 밀도도 증가했다. 무창계사가 증가하면서 평당 80수 이상 사육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평당 사육수수 증가는 곧 닭들에게는 스트레스 요인 증가로 연결된다. 사육밀도가 증가된 환경에서 얼마나 닭들에게 편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무창계사가 아니고 개방계사라고 하더라도 계사의 환기를 강제환기로 하면서 사육밀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결국에는 사육의 정확도는 환기의 정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 여름 예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무더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육계농장에서는 열사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열사의 피해가 증가한 데에는 여름철 터널환기시스템의 운영상 실수도 큰 요인이 되었다. 팬을 이용하여 강제환기를 하면서 공기의 흐름을 콘트롤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는 것의 기후 변화도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육계농장의 환기 관리가 생산성 유지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닭고기의 생산비 절감 대책은 육계의 안정된 생산성 유지에 있다고 하겠다. 현재 사육성적을 생산지수(PI)로 평가할 때 육성률, 출하체중, 사육일령, 사료요구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이 모든 면에서 균형 있는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육계농장에서는 닭들이 편안하게 성장하여 개량된 성장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향후 농장의 사육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환경관리가 결국 농장의 생산성이라고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닭고기의 생산비 절감 대책은 육계의 안정된 생산성 유지에 있다고 하겠다. 현재 사육성적을 생산지수(PI)로 평가할 때 육성률, 출하체중, 사육일령, 사료요구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이 모든 면에서 균형 있는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할 것이며 농장도 발전해가는 육계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분이 되는 이야기지만 변화해가는 현실에서 닭고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짧은 사육일령 출하 때마다 일회일비하기보다는 연간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경쟁력 있게 수익성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두에서 거론했듯이 육계사업에서 '닭고기 생산비 절감'에 대하여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의 측면으로 이해하자면, 최대의 성과를 추구하여 부를 증진시키는 경제적 행위와 최소한의 비용

으로 최대의 만족을 끌어내는 경영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적, 경영적 두 가지 측면을 농장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경영을 하시는 육계사업 경영인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GIGO'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평소 마음 깊이 새겨 두고 일을 하고 있다.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Gold In, Gold Out' (황금을 넣으면 황금이 나온다) 